복식문화연구
제3권 제1호 93~107(1995)

韓國俗談에 나타나는 容貌에 관한 硏究

金 鎭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敎授

A Study on the Personal Appearance of the Korean People Implied in the Korean Proverb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Ⅰ. 緖論
Ⅱ. 全體的 容貌
Ⅲ. 身體部位別 容貌
Ⅳ. 美人에 대한 觀念과 態度
Ⅴ. 容貌와 俗信
Ⅵ.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ersonal appearance of the Korean people implied in the Korean proverb.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 It appeared that the Korean people prefered the balanced features to the unusual ones in terms of personal appearance.

It also revealed that cleanliness and neatness in clothing and in personal appearance were valued by the Korean people.

Proper posture was emphasized by the Koreans. Generally, fair skin and small hands were favored by both sexes. Also the Korean people favored handsome, gentle, and decent features as well as dignified and noble character.

Ⅰ. 緖 論

우리나라 속담에는 용모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모와 관련있는 속담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인은 용모에 대한 어떤 관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속담은 어떤 특정 집단의 생각과 의식 표현의 결과가 아니고 시대성과 보편성을 지닌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또는 가치 표현의 결과라는 점에서, 용모와 관련있는 우리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규명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Ⅱ. 全體的 容貌

1. 용모는 마음의 거울

2. 몹시 약한 체격
   ㅇ두부살 바늘뼈(=바늘뼈에 두부살)
   두부처럼 흐물흐물한 피부와 바늘처럼 가늘고 약한뼈, 즉 몹시 연약하고 약한 체격을 가리키는 말

3. 무른살이 쪄서 허옇고 허울이 좋음을 이르는 말
   ㅇ풍년(豊年) 두부 같다.
   풍년이 들면 두부 모가 더 커지고 좋아지는 법이니 사람이 무른살이 쪄서 허옇고 허울이 좋음을 이름.

4. 얼굴이 희어 멀쑥하고 몸집이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
   ㅇ샌말 볼기짝 같다.
   (=샛은 배추 줄거리 같다)
   샌말-털이 하얗게 센말

5. 신수가 깨끗하고 멀쑥함을 이를 때
   ㅇ여덟가래 대문어(大文魚) 같이 멀끔하다.

6. 남을 누를만한 위엄이 있어 보이는 얼굴
   龍尾에 범 앉은 것 같다.
   龍尾-무덤뒤로 꼬리처럼 만든 자리

7. 얼굴이 복있게 생겼다는 말
   ㅇ밥이 얼굴에 덕적덕적 붙었다.

ㅇ밥술이나 먹게 생겼다.

8. 사람이 우둔하고 體肢가 큰 모양을
ㅇ용정(舂精)공이 같다.

9. 못생기고 길쭉한 얼굴모양의 사람을
ㅇ방아공이 같다.
ㅇ절구공이 같다.

10. 키는 작고 몸집이 뚱뚱한 사람
도라무통 같다.
도라무-드럼

11. 옷입은 맵씨가 두리벙벙함을 이르는 말
ㅇ가지 붕탱이 같다.
ㅇ군밤 둥우리 같다.
ㅇ두루뭉수리 같다.
ㅇ절구통 같다.
ㅇ도라무통 같다.
ㅇ절구에 옷입혀 놓은 것 같다.
키가 작고 뚱뚱하기만 한 여자를 조롱하는 말
ㅇ절구통에 치마를 씌운 것만 봐도 사지를 못 쓴다.
ㅇ절구통은 내일 아침이다
체구는 작으면서도 절구통처럼 뚱뚱한 사람을 조롱하는 말
ㅇ절굿공이가 순경(巡更)을 돌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은 않고 밖에만 돌아다니면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뜻.

12. 몰골이 초라하고 옳지 않은 것
① 꼴 둠부리 같다.
소에게 먹일 꼴을 베는 草童 같다는 뜻.
② 가지 붕탱이 같다. (=군밤 둥우리 같다)
키가 작고 뚱뚱하여 옷맵시가 두루뭉실하고 미끈하지 못한 사람을 웃는 말. → 군밤 둥우리 같다.
③ 덩덕새 대가리 같다.
머리털이 헝클어져 막 쑤셔 비빈 것 같다는 말
≒수펑이 대가리
ㅇ수펑이 대가리

13. 기골이 연약하고 얼굴이 맑은 사람

ㅇ수파련(水波蓮)에 密童子.

기골이 연약 섬세하고 얼굴이 맑은 사람을 가리킴.

밀동자－밀로 손가락 마디만하게 만든 童子의 형상

14.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에 대하여

ㅇ파주미륵(坡州彌勒)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을 이름.

ㅇ절구 千重만 하다.

몸집이 크고 뚱뚱하며 몸에 무거워 보이는 사람

15. 못생긴 사람의 용모에 대하여

ㅇ메주 같다

인물이 못 생겼다는 뜻

솜씨가 메주 같다. 솜씨가 아주 없다는 뜻.

ㅇ메주로 뭉쳐도 그 보다는 낫겠다. 못생긴 얼굴이라는 뜻

16. 얼굴이 지저분할 때

ㅇ첫 나들이를 한다.

얼굴에 먹칠이나 무슨 빛깔이 묻은 사람을 조롱하는 말

✶ 신수가 깨끗하고 멀쑥함을 이를때

ㅇ여덟가래 대문어(大文魚)같이 멀끔하다.

17. 얼굴이 흉한 사람을 두고 말할 때

✶ 얼굴이 얽은 사람

ㅇ우박 맞은 잿더미 같고, 화랑의 射布같다.

숭얼숭얼 구멍이 뚫렸다 함이니, 얼굴이 얽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 콩마당에 넘어졌다.

ㅇ콩마당에 넘어졌다.

ㅇ콩멍석에 넘어졌다.

18. 體　身

ㅇ체신 작고 안 까부는 사람없고 체신크고 안 싱거운 사람 없다.

19. 매우 경망스러운 사람을 두고

ㅇ촐랑이 수염같다

ㅇ초라니 같다.

ㅇ초라니다

초라니－기괴한 계집 형상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가진 나자(儺者).

20. 몸집이 매우 작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ㅇ무녀리 마냥 작기도 하다.
무녀리－한 배의 여러 마리 중에서 맨 먼저 태어난 짐승의 새끼

21. 모양이 앙상하고 볼품 없음을 이르는 말
삽살개 뒷다리
털벗은 솔개미
털뜯은 꿩
꽁지 빠진 꿩이다.
꽁지 빠진 새 같다.
뼐뺀 쇠상(相)
청어 가시 같다.
멸치 같다.
갈비(씨)
갈비(씨)다
명태 같다.

22. 초라한 모습
ㅇ해산 할미 같다 = 해산 어미 같다
ㅇ해산 어미 같다
몸이 부석부석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
ㅇ해산 미역 같다
허리가 굽은 사람을 보고 조롱하는 말
ㅇ꽁지 빠진 꿩이다.
ㅇ꽁지 빠진 새 같다

23. 검고 더러운 衣眼에 대한 말로
굴뚝막은 덕석 같다.

24. 가날프고 키가 작은 사람을 이르는 말
ㅇ굴뚝에서 빼놓은 촉제비
자질구레 하고 지저분하며 키가 작고 가날픈 사람을 두고 하는 말

25. 얼굴에 생기가 없는 모습
ㅇ벌레먹은 배추잎 같다.

· 얼굴에 검버섯이 끼고 기미가 흉하게 퍼진 것을 보고 하는 말
(=벌레 먹은 삼(麻)잎 같다.)
ㅇ벌레먹은 삼(麻)잎 같다.
ㅇ시들은 배추잎 같다.
얼굴에 생기가 없고 주름잡힌 피부가 누렇게 떠 있음을 이름.

26. 훤칠한 사람
ㅇ씻은 무우 같다.
ㅇ씻은 배추 줄거리 같다.
얼굴이 희고 키가 훤칠한 사람을 가리킴.
=씻어 놓은 흰죽 사발 같다.
ㅇ씻은 흰죽 사발 같다.
ㅇ씻은 쌀알 같다.
사람이 미끈하고 똑똑하다는 뜻
=씻은 팥알 같다.
ㅇ씻은 쌀알 같다.
ㅇ뛰는 생선 같다.

27. 볼품 없는 사람
ㅇ배추 꼬랭이
ㅇ배추 꼬리
ㅇ전기 공(대머리)

28. 못생긴 사람
배가 나온 사람
ㅇ배가 南山만하다.
① 배가 많이 옮길 것을 두고 하는 말
② 임신해 배가 나온 사람
ㅇ아랫배 千石
아랫배가 나온 것을 부귀의 상징으로 여겼던 예를 위의 속담에서 볼 수 있다.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을 사장 같다고 하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살이 찐 사람을 부귀가 붙은 사람으로 간주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ㅇ못생긴 여자
뻥덕 어멈 같다
小說 沈淸傳에서 나온 말로서 수다스럽고 못생긴 여편네를 이름
호박같다.
호박꽃
꽃은 꽃이라도 호박꽃이다.

호박 굴퉁이 같다
호박 굴퉁이 같이 못 생겼다

29. 外樣이 미끈하고 풍신 좋은 사람을 일러서
- ㅇ깎은 밤 같다. = 깎은 밤톨(토리) 같다. 깎은 서방님
- ㅇ깎은 밤톨(토리) 같다.
- ㅇ깎은 서방님
- ㅇ도토리 같다.
  도토리 같이 外樣이 단단하고 귀엽게 생긴 사람
- ㅇ밤벌레 같다
  살이 토실토실하고 살빛이 뽀유스름한 사람을 이름.

30. 용모가 빼어나고 화려한 옷차림
- ㅇ文採좋은 車福成이다
  용모가 빼어나고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을 이름.

31. 전체적인 용모임
◎ 여자
- ㅇ종가(宗家)집 며느리 틀이 있다.
  사람이 덕성(德性)스럽고 인복이 있어 보임.
- ㅇ부잣집 맏 며느리 감이다.
  복스럽고 덕이 있게 생긴 처녀를 이름.

32. 얄밉고 미련하고 촌스러운 사람
- ㅇ꼬약쥐 같다.
- ㅇ꼬약쥐 새끼 같다.
  꼬약쥐처럼 약삭 빠르게 생긴 사람을 이름.
- ㅇ쥐새끼 같다.
- ㅇ여우 같다.
- ㅇ곰 같다.
- ㅇ곰탱이 같다.
- ㅇ촌닭 같다.

33. 天上 바라기
언제나 얼굴을 위로 쳐들고 다니는 사람을 이름.

34. 요령(搖鈴) 도둑놈
생김새가 흉악스럽고 눈알이 커서 늘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35. 기괴한 생김

ㅇ얼굴이 모검뢰공(毛臉雷公) 같다.

생김이 奇怪함을 비웃어 하는 말

36. 덤벙대는 여자

ㅇ선머슴애 같다.

女子아이가 덤벙거리고 사내아이 같음을 이름.

ㅇ꼴둠부리 같다.

꼴ㅡ소에게 먹이는 풀

꼴둠부리ㅡ꼴을 베는 소년 卽 草童이라는 뜻

ㅇ두루 뭉수리 같다

모양이 단정치 못하고 아무렇게나 뭉쳐 놓은듯 한 것을 이름.

잘못 생긴 것. 메주 같다와 같은 뜻

ㅇ메주 같다

Ⅲ. 身體 部位別 容貌

1. 눈에 대하여

① 툭 불거져서 보기에 흉하게 생긴 눈

ㅇ창애에 치인 쥐눈

②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고 큰 눈을 이름.

ㅇ얼음에 자빠진 쇠 눈깔.

ㅇ얼음판에 자빠진 쇠눈깔 같다.

ㅇ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눈깔 같다.

③ 눈알이 크고 불거져 나온 눈을 이름.

ㅇ쇠눈깔 같다.

ㅇ황소눈깔 같다.

ㅇ왕방울 같다.

④ 큰 눈을 일러

ㅇ화경 같다

⑤ 눈초리가 매우 사나운 사람을 일러

ㅇ돌담 구멍에 족제비 눈깔 같다.

2. 머리와 발

ㅇ머리 큰 양반(兩班), 발 큰 도둑놈

ㅇ머리가 크면 將軍이요 발이 크면 도둑이다.

장군은 투구를 쓰므로 머리가 크면 장군 머리 같다고 하고, 도둑은 도망을 잘 다니기 때

문에 발이 크면 도둑놈의 발 같다고 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ㅇ사내 못난 것은 대가리만 크고 계집 못난 것은 젖통이만 크다.

① 큰발

ㅇ도둑놈 발 같다

ㅇ발이 배(舟)만 하다

ㅇ발 큰 도둑놈은 있어도 손 큰 선비는 없다.

② 女子의 발

버선을 신은 女子의 발이 갸름하고 깨끗하며 예쁘다는 말

ㅇ오이씨 같다.

ㅇ오이씨 같은 발

3. 다리(날씬한 다리)

ㅇ무우뿌리 같이 날씬하다

ㅇ사슴의 다리 같다

4. 허리

ㅇ개미 허리다

ㅇ개미 허리 같다

5. 술을 먹어 얼굴빛이 붉은 것에 대하여

ㅇ쇠 같은 놈 같다.

ㅇ선짓국을 먹고 발등걸이를 하였다.

ㅇ말고기 자반

ㅇ朱土광대를 그렸다.

ㅇ원숭이 볼기짝인가

ㅇ잔나비 볼기짝 같다.

6. 키에 대한 태도

① 큰키와 작은키에 대한 태도

키 크면 속없고 키 작으면 자발없다.

체신 작고 안 까부는 사람 없고 체신 크고 안 싱거운 사람 없다

② 큰키

키 크면 속 없고 키 작으면 자발없다.

키 크고 묽지 않은 놈 없다.

키 크고 싱겁자 않은 사람 없다.

키 크고 싱겁지 않으면 배내 병신이다.

키 크고 싱겁지 않으면 배안에 병신이다.

③ 작은키

ㅇ키 작으면 앙큼하고 담대하다.
ㅇ윤달든 회양목인가
ㅇ키 작고 안 까부는 놈 없고 키 크고 안 싱거운 놈 없다.

④ 마르고 키 큰 사람
ㅇ장승만하다－무섭게 키 큰 사람을 이름.
ㅇ天王의 지팡이
ㅇ땅 넓은 줄은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안다.
ㅇ鳳山 수숫대 같다.
황해도 鳳山에서 나는 수숫대는 키가 유달리 크므로 말쑥하게 말라서 키만 큰 사람을 이름.
ㅇ물거미 뒷다리 같다.
ㅇ물독 뒤에서 자라났다.
ㅇ신속에 똥을 묻고 다니나, 키도 잘 자란다.
ㅇ웅달의 승앗대.
ㅇ건밭에 부룻대
ㅇ군불장댄가 키만 크다.
ㅇ장대같다.
ㅇ장대만 하다.
ㅇ수수깡이 같다.
ㅇ군불 장댄가 키만 크다.

⑤ 키 작은 사람.
ㅇ윤달(閏月) 든 회양목(回楊木)인가
회양목(回楊木)은 윤달이 되면 그 키가 한치씩 준다는 傳說이 있으므로 이 전설에서 나온 말이다.
ㅇ난쟁이다
ㅇ난쟁이 같다

7. 수염

① 텁석부리
ㅇ엿을 물고 개잘량에 엎드러졌나
수염따위 털이 많은 사람을 놀리는 말
개잘량－털이 붙은 채로 만든 개가죽의 방석
ㅇ털보
ㅇ두루미 꽁지 같다
숱하게 난 수염이 짧고 더부숙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

② 수염 많은 사람에 대한 태도
ㅇ텁석 부리 사람된 데 없다.
ㅇ텁석 부리는 好色이다.

8. 머리 모양에 대하여

① 머리가 하얗게 세어서 늙었다는 뜻으로

머리가 모시광주리 같다

머리가 모시바구니가 되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다.

머리에 미나리 꽃이 만발한다(벙어리 삼년, 장님삼년, 귀머거리 삼년, 석삼년 시집살이 살고 나니 머리에 미나리 꽃이 만발한다.)

② 머리를 빗지 않고 두어서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엉켜있다는 뜻으로

ㅇ머리가 쑥 대강이 같이 흩어졌다.

ㅇ머리가 부엌방석 같다.

ㅇ머리가 귀신 같다.

9.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ㅇ상판대기가 담뱃진 먹은 고양이 相이다.

ㅇ똥 먹은 곰의 相

ㅇ똥 주워 먹은 곰의 상판대기

ㅇ왜아들 잡아먹은 할미相

ㅇ우거지 相

ㅇ맹감 먹은 相이다

ㅇ벌 잡아 먹은 두꺼비 相이다.

10. 걸음

① 맵시를 부려 아장거려 걷는 걸음에 대하여

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

백모래밭의 금자라 걸음

양지 마당의 씨 암탉 걸음

② 뚱뚱한 사람이 뒤뚱거리며 걷는 것

왕지네 마당에 씨 암탉 걸음이다.

③ 염불 빠진 년 같다

어기적 거리며 잘 걷지 못한다는 뜻

염불－女子의 陰門밖으로 아기집이 病的으로 빠져 나온 것

④ 여덟팔자 걸음이다.

양반 걸음은 여덟팔자 걸음이므로 양반 행세를 하며 거만스럽게 걷는다는 말이다.

11. 엉덩이

ㅇ계집 못난 것이 엉덩이만 크다.

ㅇ엉덩이가 떡판만하다.
ㅇ엉덩이에 맷돌을 달았다.
ㅇ계집 엉덩이가 한짐에는 못지고 집반은 되겠다.
ㅇ낯짝이 반반하면 얼굴값 한다.
ㅇ여자는 예쁜값을 한다.
ㅇ여자 고운 것과 바닷물 고운 것은 바람 탄다.
ㅇ예쁜 여자 잡아드리라고 하니 살찐 여자 잡아드린다.
옛날에는 살찐 여자를 보면 부잣집 맏며느리 감이니 복스러우니 하면서 주부의 모델로 삼은데서 유래된 말.
ㅇ여자 입은 작아야 하고 남자 코는 커야 한다.
ㅇ입술 두터운 여자가 정이 많다.
ㅇ아랫 입술이 두터우면 호색이다.
ㅇ귓밥이 두꺼운 사람은 애정과 정력이 강하다.
ㅇ남자나 여자나 음부에 사마귀가 있으면 한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Ⅳ. 美人에 대한 觀念과 態度

美人에 대한 관념은 楊貴妃, 달, 꽃, 玉, 仙, 觀音 등을 빌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은 속담에서 볼 수 있다.

ㅇ천하일색 楊貴妃도 못녹인 사내가 있다.
ㅇ楊貴妃 외딴 친다
女子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움을 이름.
ㅇ떠오는 달(月)이다.
인물이 훤하고 아름답다는 말
ㅇ달(月) 덩이 같다.
인물이 훤하고 아름답다는 말
ㅇ八仙女라
옷차림이 꼴불견인 경우에 쓰는 反語이다.
小說 九雲夢의 아름다운 八仙女에서 딴 말
ㅇ八仙女를 꾸민다.
九雲夢에 나오는 八仙女는 매우 아름다우나, 이 말은 그 반대로 옷차림이 요란스러우나 그것이 우스꽝스러울 때 이름.
ㅇ반달 같은 딸이 있으면 온달 같은 사위도 고른다.
반달같이 아름다운 딸이 있으면, 사위도 얌전한 사위를 고를 수가 있다는 뜻.
ㅇ여자는 젊어선 관음 같고, 늙으면 원숭이가 된다.
[少是觀音老是猴]
여자가 젊었을 땐 관세음보살같이 아름답지만, 늙게 되면 원숭이처럼 얼굴이 흉해진다는 뜻.

ㅇ 꽃이 부끄러워 하고 달이 숨겠다.

꽃과 달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미인이라는 말

仙姿玉質

月態花容

花容月態

雪膚花容

玉蟹紅顔

九雲夢에 나오는 八仙女는 매우 아름다우나 俗談에서는 옷차림이 요란스럽거나 꼴불견인 경우에 反語로 쓰인다.

美人이 갖추어야 할 살결과 인체 부위에 대한 관념을 보면 얼굴엔 잡티가 없어야 하며, 흰 살결과 작은 입, 붉은 입술, 흰 이, 검은 머리, 넓은 이마와 양미간, 가는 손, 작은 발 등이다. 속담에서 보이는 예를 몇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살결 ㅇ 쌀밥과 여자는 흴수록 좋다.

ㅇ 앵두 같은 입술에 박씨 같은 이빨이다.

ㅇ 여자는 서울말씨에 평양인물에 강원도 살결이래야 한다.

살결은 강원도 여자 살결과 같이 아름다와야 미인이란 뜻

속신 ㅇ 죽은깨 많은 여자는 색골이다.

西洋에서는 죽은깨가 있는 것을 귀엽다고 좋아하는 반면 우리는 깨끗한 피부와 얼굴을 좋아하는 것을 위의 속담에서 볼 수 있다.

ㅇ 양미간이 넓으면 소견이 틔었다.

ㅇ 이마가 훌떡 까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틔었다.

입 ㅇ 여자 입은 작아야 하고 남자 코는 커야 한다

美人이 갖추어야 할 인체부위에 대한 것은

明眸皓齒, 雪膚花容, 玉蟹紅顔, 皓齒丹脣, 纖纖玉手

等에서 볼 수 있듯이 맑은 눈동자, 흰 살결, 붉은 입술, 가늘고 아름다운 손이다. 이러한 관념은 中國에서도 유구한 세월동안 변함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俗談에도 美人의 要件에 대한 같은 관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美人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는 꼭 美人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닌 否定的 관념이 보이는데 이러한 관념은 中國과 西洋속담에도 공통으로 보인다. 몇가지 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ㅇ 인물이 좋으면 한마당 귀에 시아버지가 아홉이다.

ㅇ 미인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ㅇ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ㅇ 절세 미인도 흠이 있다.

ㅇ 추녀는 살수록 정이 들고 미인은 살수록 정이 떨어진다.

ㅇ 미인은 사흘에 싫증이 나고 추녀는 사흘에 정이 든다.

ㅇ미인에게는 나이가 없다.
얼굴이 예쁜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예쁘다는 뜻
ㅇ낯짝이 반반하면 얼굴값 한다
ㅇ여자는 얼굴 값을 한다.
ㅇ여자는 예쁜 값을 한다.
ㅇ여자 고운 것과 바다 바람 고운 것은 바람 탄다.
ㅇ여자는 예뻐도 욕 얻어 먹고 미워도 욕 얻어 먹는다.
ㅇ佳人薄命
ㅇ美人薄命
ㅇ紅顔薄命
ㅇBeautiful flowers are soon picked
ㅇBeauty and folly are often companions
ㅇBeauty and luck seldom go hand in hand
ㅇBeauty is but a blossom.
ㅇBeauty is but a skin-deep

Ⅴ. 容貌와 俗信

ㅇ죽은깨 많은 여자는 색골이다.
ㅇ머리털이 유난히 많은 사람은 색골이다.
ㅇ털 많은 사람은 호색이다.
ㅇ토끼디 계집아이는 예쁘다.
ㅇ하루 머리를 세번 빗으면 구멍창녀된다(제주도)
몸치장을 너무 하는 여자는 바람기가 들어 신세를 버리게 된다는 뜻.
ㅇ항상 웃고 항상 곁눈질만 하고 행동이 가벼운 여자는 음란하다.
ㅇ잘 웃고 잘 우는 여자는 팔자가 세다.
ㅇ눈속에 물기가 있는 사람은 호색이다.
ㅇ눈썹이 드물고 아래로 굽은 사람은 호색이다.
ㅇ눈 언저리가 푸르면 호색이다.
ㅇ눈 웃음 잘 치는 사람은 호색이다.
ㅇ눈 웃음에 주름이 지면 바람을 피운다.
ㅇ마른 사람이라야 색골이다.
ㅇ자기 인물 자랑을 하는 여자는 바람을 피운다.
ㅇ백××는 재수가 없다.
털이 있어야 할 데 없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재수가 없다는 말
ㅇ입춘날 ××털 많은 여편네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논밭에 풀이 무성하다.
입춘날에는 음모가 많은 여자는 남의 집에 가는 것을 삼가하라는 뜻

Ⅵ. 結　論

우리나라 俗談에는 용모와 관련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것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외모가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 환언하면 용모에도 어떤 특징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신체부위별로도 너무 특징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너무 가늘고 연약한 사람, 너무 뚱뚱한 사람, 너무 작은 사람, 너무 키 큰 사람, 너무 우악한 사람, 너무 사나운 사람, 우둔하게 생긴 사람, 얼굴이 너무 긴 사람, 못 생긴 사람, 검은 얼굴, 큰 입, 큰 코, 큰 눈, 얽은 사람, 텁석부리, 얼굴이 붉은 사람, 눈이 튀어나온 사람, 눈동자가 흐린 사람, 눈초리가 사나운 사람, 발이 큰 사람, 배가 나온 사람, 바른 자세로 걷지 않는 사람, 머리모양이 헝클어진 사람, 얼굴을 찡그린 사람, 얼굴이 기괴하게 생긴 사람, 옷입은 맵시가 두리벙한 사람,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 여자 엉덩이가 큰 사람, 여자 입 큰 사람, 아랫입술이 두터운 사람, 죽은깨 많은 여자, 항상 웃고 곁눈질하는 여자, 행동이 경망한 사람, 눈웃음 잘 치는 사람, 눈 속에 물기가 있는 사람, 눈썹이 드물고 아래로 굽은 사람, 눈 언저리가 푸른 사람, 머리털이 유난히 많은 사람.

대체로 피부는 남녀 모두 흰것을 좋아하고 손은 작은 것을 좋아했다. 얼굴은 소위 복있게 생겼다는 너무 여위지 않은 모습과 풍채도 적당히 있는 모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자는 머리가 큰 것을 좋아했다.

전체적인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한 모습을 좋아하였고 체신이 너무 작은 것, 너무 큰 것은 좋아하지 않았으나 잘 생기고 점잖고, 말쑥하고, 훤칠한 사람을 좋아하였다. 초라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은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여자의 전체적인 용모는 美人을 좋아하면서도 또한 美人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경계하는 태도가 함께 나타났으며, 소위 德性스럽고 복있어 보이는 진중한 형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1. 大經出版社 編輯部 編, 俗談辭典, 大經出版社, 1987.
2.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上, 下, 동광출판사.
3. 世和圖書出版 編集部 編, 英韓俗談 辭典, 世和, 1985.
4. 신기철 신용철 편, 우리말 큰사전 上, 下.
5. 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 사전, 1983.
6. 송재선, 상말속담사전, 東文選, 1993.
7. 李基文 編, 俗談辭典, 一潮閣, 1962.
8. 한국토속문화 수집회 편, 속담, 격언, 수수께끼, 가야출판사, 1980.